

♥ 정작 차지하는 땅의 넓이

세계-제패(制覇)를 꿈꾸던 알렉산더 대왕은 우선 유럽 전도를 휩쓸었습니다. 그의 꿈은 나라와 나라가 피를 섞어 인류가 한 가족이 되면 전쟁과 다툼이 없어지리라는 것이었지만, 그가 휩쓸고 간 자리는 살육과 살생과 파괴만 처참하게 널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는 모든 군사가 모인 자리에서 생동한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누구든지 씨름을 해서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한동안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에 병사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그는 너무나 가볍게 왕을 들어올려 땅에 던져 버렸습니다. 모두들 '와아!' 함성을 지르던 동안 이상하게 왕은 벌렁 누운 채 일어 날 생각을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왕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모두들 당황해 했고, 왕을 던져버린 병사는 자신이 경솔했음을 후회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눈을 자국을 둔 채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땅바닥에 벌렁 누던 순간 응성이 들렸습니다. 알렉산더야! 네가 온 유럽을 다 점령했다 해도 나중에 네가 죽어서 누울 땅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가 지금 누어있는 그 땅보다 더 크게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 씨름은 인간이 죽은 뒤에 누는 땅의 크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뒤에도 알렉산더는 전쟁을 계속했고 영토를 확장해 나갔지만 겨우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씨름 끝에 땅바닥에 던져져 누었던 만큼의 땅밖에는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욘 14:10)

말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뜨겁진 않지만
아직 사랑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비하신 사랑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시 51:11-13)
holyteen.com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섬김과봉사 *의명성-명예
제 9권 2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7월 8일
☎ 369-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 하나님! 나의 하나님 ▶

十 독한 그리스도인

주변의 친구 중에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다. 그들 중에 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친구 중에는 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왜 그리스도인이 독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 승부욕이 강하고, 집념이 강하고,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독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유는 그들이 본 것이 많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좁게 사는 존재들에게 명끝을 보게한다. 매 장마다 비전과 꿈이 넘쳐난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벅차 오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들의 눈과 가슴은 역사를 초월하고, 우주를 아우르는 시각으로 무장된다.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이루려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전과 꿈을 자기 방식과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대생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 상이 교회 권사님 스타일이었다. 왜? 교회 권사님은 들은 것이 많다, 본 것이 많다. 꿈꾸는 것이 많다. 본 것은 큰데,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인간적 이고 세속적이니 문제다. 요한계시록의 홍보석, 녹보석 등의 휘황찬란한 세계를 보고 들어서 안다. 그런데 그것은 머느리의 혼수감으로 채우려고 하니가 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큰 것을 본 것은 좋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 독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내 주장으로 이루려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려는 존재들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독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조카 룯과 헤어질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독기를 볼 수 있는가? 자기가 판 우물을 가로채려고 한 아비멜렉에게 양보하는 이삭에게서 독기를 발견할 수 있는가?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반에게서 독기가 발견되는가? 오히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지닌 절대 용서와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무장하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의 방식과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좋은 것을 내 힘으로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독기가 나오는 것이다. 독한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해서 존재할 수 없는 말이다.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구하는 온유함을 회복하자.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주일예배 찬양”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찬 송 Hymn	27 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6 (시편104)	다 같 이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200 장	다 같 이
기 도 Pray		김 교섭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 6장1-5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짐을 서로 지라”	이 태한 목사
찬 송 Hymn	363 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 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 215.00 총액: \$ 318,629.70

◆7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 내
01	고성일		본당:권사
08	김교섭		
15	김반석		현관 : 박일영 최재학
22	김순자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9	김영길		윤주야 장유진

◆7월의 교회력◆

	행 사	예배와 모임
1	맥추감사주일	헌신예배
8		구역예배
15	전교인체육대회	창립기념예배
22		남녀선교회월례회
29		

『교회 생활』	『교회 등록』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등록을 원하시는 새 교우는 예배후 새 가족부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우소식 <축하> 김 성원 양 (김용석, 최신덕 집사)
St. Cuthberts College - 5년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
2. <예고> 창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회개최
*일시 : 2007년 7월 15일 오후 12시- 5시
*장소 : 학교 체육관 (현재 학생부 예배장소)
*팀 구성 : 청팀- 북쪽 (하버 브릿지 건너 거주하는 성도)
(검은 계통의 옷 착용)
백팀 - 그 외 지역 성도 (하얀 계통의 옷 착용)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유학생들을 위해 조금 넉넉히 준비바랍니다)
(떡과 과일은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준비물 : 땀자리류와 운동하기에 적당한 체육복 등
*주차 : 4 Gate 와 Hope Town
*SCHEDULE
.12:00 - 12:40 예배
.12:40 - 12:50 축하 행사
.12:50 - 13:00 전교인 기념사진 촬영
.13:00 - 14:00 식사
.14:00 - 16:00 전교인 참여 즐거운 운동회 (우승팀 푸짐한 상품, 줄다리기, 청백계주, 에어로빅 등등..)
.16:00 - 16:20 행운권 추첨
.16:20 - 16:30 청소, 정리

◀ 착한 시인들 ▶

눈오는 저녁 - 김 소월 -

바람 자는 이 저녁
흰 눈은 퍼붓는데
무엇하고 계시노
같은 저녁 금년은..

꿈이라도 꾸면은
잠들면 만날 런가
잊었던 그 사람은
흰 눈 타고 오시네
저녁때 흰 눈은 퍼부어라.

첫눈 오면 만나자던 약속이
지켜질까. 종로서적 앞에서
서성였던 추억이 모발폰의
세련미에 더 이상 누구의 가슴에
안길수 없게 됨이 아쉽습니다.

“LOVE STORY” 의 SNOW FROLIC 이
들려지면 아름답다 못해
서러움으로 아직도 가슴이 뛰는
우리, 가난한 시대를 넘어
왔으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